현대불교

행복 만들기 캠페인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

제 714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3년 1월 14일(음력 12월 19일) 수요일(주간)

1월 9일 해인사에서 열린 신년하례법회에서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사부대중의 화합과 보시바라밀 실천을 당부했다. 사진제공=조계종.

“세계는 한 총림, 어려울수록 나누며 살라”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 9일 신년하례법회서 교시

종정 법전 스님께 새해인사를 올리는 조계종 신년하례법회가 1월 9일 오전 11시 합천 해인사에서 200여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 자리에서 법전 스님은 “세계가 한 총림이며 세계인이 모두 총림대중”이라며 “정신적으로 힘들수록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하고 물질적으로 어려울수록 서로 나누면서 살아야 한다”고 교시를 내렸다.

이날 법회에는 성수 · 지혜 스님 등 17명의 원로의원 스님, 총무원장 지관 스님, 교구본사 및 주요사찰 주지, 중앙종무기관 소임스님, 중앙신도회 회장단,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조윤명 경남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김성우 기자

올해도 군포교는 이상 無!

군종교구 수계법회로 ‘기운찬 출발’

군심(軍心) 속 불심(佛心)을 심는 불법홍포는 기축년에도 계속된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일면)는 1월 7일 진해 해군교육사령부 흥국사를 찾아 신년 첫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군종교구장 일면 스님을 비롯해 해군사관학교 한관희 법사, 등은 교육사령관 김정두 중장을 접견하고 해군장병 400여 명에게 수계법회를 거행했다.

해군에 이어 육군도 군포교에 시동을 걸었다. 1월 10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주지 김종봉 법사)에서는 장병 2000명을 대상으로 수계법회가 봉행됐다. 이날 수계법회에서는 지정기탁금 1000만원과 귤 200박스 등이 전달됐으며 광동학원 여학생 댄스팀이 위문공연을 펼쳤다.

1월 8일 교구회의실에서는 해외파송 법사 환영식을 개최했다. 올해 귀국한 이라크 자이툰부대의 이동경 법사와 해군 순항훈련 김명환 법사 등이 부처님께 신고하고, 레바논 동명부대로 파송되는 동명사 권기원 법사 등 해외파병 장병을 격려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1월 11일 국방부 원광사에서는 군불교총신도회 신년법회도 열렸다. 교구장 일면 스님과 재경지역 법사, 군불총회장 김태영 합참의장, 군불총 주요 임원들이 참석해 신년 군포교 의지를 다졌다. 노덕현 기자

진해 해군장병 400여 명은 기축년 국가안녕을 부처님께 발원했다.

“목적에 충실해”
14 선지식을 찾아서 묵산 스님

“기도로 행복을”
4 동화사 허운 스님

“千의 바람 될래요”
9 도반의 향기 변해림

역경에 분 ‘소통’ 바람 제도화해야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사업 ‘다자간 시스템 번역’ 도입 성공

열반을 일컫는 니르와나(nirvāṇa)를 A는 ‘니르바나’라 하고, B는 ‘니르와나’, C는 ‘닐바나’, D는 ‘열반’이라 말하면 어떻게 될까? 또 ‘색(色)’을 ‘물질’ ‘현상’으로 표기하거나 ‘공(空)’을 ‘없음’ ‘텅빔’이라한다면? 한 단어를 두고 여러 가지로 표기하는 까닭에 연구자는 물론 불자들 모두가 혼동을 겪어왔다. 용어의 혼용은 번역자의 개성과 의미전달의 효율을 넘어 대규모 번역출판 사업 등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큰 문제로 지적돼 왔다.

조계종 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위원장 지관, 이하 간행위)가 2009년 5월 회향을 앞둔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이 국내에서는 처음 번역자간 소통을 기반으로 한 다자간 시스템 번역 성공사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다자간 시스템 번역은 3~4명의 전문인력이 할당량을 배분해 번역하는 방식이다. 개별 번역에 비해 오류를 줄이고 정확한 원문해석을 할 수 있지만 번역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문인력과 재정만 확보된다면 시스템 번역이 가장 확실한 역경체계”라고 입을 모은다.

중국에서 범어 경전을 한문으로 번역할 때도 다자간 시스템 번역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문경전의 구역과 신역을 구분하는 신기원을 이룬 현장 스님을 비롯해 중국에서는 인도 · 중국스님들이 초벌 번역한 것을 2차례 교정본 뒤 윤문과정을 거쳐 최종 번역했다.

다자간 시스템 번역의 극치는 중국 송대의 역경원으로 역주 · 증의 · 증문 등 8단계를 거쳐 불전을 번역했다.

간행위는 한국불교전서 발간을 통해 전통불교사상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고조시키고자 2007년 2월 조계종 총무원장 직속기구로 발족됐다. 2009년까지 3개년 동안 국고 등 30억 예산을 투입하는 간행위 사업은 동국역경원의 <한글대장경> 사업에 이은 대규모 번역출판 프로젝트라는 규모뿐 아니라 다자간 시스템 번역의 도입으로 시행초기부터 교계의 관심을 모았다.

2010년 완간을 목표로 간행위가 발간할 도서는 한글 및 영역본 각 13권씩 총 26권. 신라시대부터 조선조까지 원효, 지눌, 혜심 등 한국 대표 고승들에 의해 저술된 한국불교 전통사상서 가운데 69종을 선별해 13책으로 묶었다.

6개의 한글 · 영어 번역팀과 영역교열팀, 영역윤문팀의 40여 번역 · 교열 · 윤문진은 팀별 워크샵 및 전체 워크샵을 통해 번역의 완성도를 높여왔다.

간행위 제1팀만 해도 해주 스님(동국대)을 팀장으로 대학원생들이 수십번 윤문과 주해과정을 거쳤다. 한글화된 것을 로버트 버스웰 교수(美 UCLA) 등 영어권 학자들이 영역했고, 한글화 작업자와 영역 작업자가 만나 소통하며 오류를 줄였다.

다자간 시스템 번역은 동국역경원 출범 전부터 도입됐었다. 동국역경원 출범이전인 1963년 1월, 조계종 종정 직속기관으로 구성됐던 역경위원회는 번역 · 증의 · 윤문 등 6개 분과를 갖췄었다.

교계 전문가들은 “간행위의 형편이 역경원과 달랐다”고 말하지만 간행위 역시 국고와 종단의 지원은 있었어도 번역작업에 어려움이 많았다. 교열을 담당한 미산 스님(중앙승가대)은 “한국전통사상서 번역에 사용된 시스템 번역은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라며 “종단에서 추진했기에 가능했다”라고 말했다. 중국 역경원이 왕실의 후원 속에 고비용의 역경시스템을 유지했듯 정부와 총무원의 전폭적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불사였다는 말로 해석된다.

간행위는 1월 17~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5차 국내 · 국제 워크샵을 개최한다. 사업시행 초기부터 지금까지 네 차례 워크샵을 열어 번역원칙, 스타일, 편집방침을 정했다. 이번 제5차 워크샵에서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한글 번역 성과물을 공유하고, 번역 및 교열과정에서의 성과와 문제해결 방법 등을 공유하게 된다.

3년여에 걸친 간행위의 번역 인프라가 제도화 · 상설화돼 종단 3대 사업인 역경사업의 새 전기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특별기획
불황 · 한파, 마음공부로 ‘희망’을…
⑥생활속의 다라니수행 ▶5면

첫서리 맞은
금강선원 뽕잎차
현대 불교 신문 연재 | 초중스님의 뽕잎차 이야기
당뇨병, 고혈압, 혈액순환
주소창에 치세요
주소(D) 뽕잎차
뽕잎차 주문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말사 금강선원 TEL 055) 931-9590

“숲 향산화 원액 100%”
청 다 향
덕유산 청다향 문의 055)941-1083
부처님 제일공양
한국최초 식품과학 연구분석(동국대)
51가지 향기판명

위대한 이 시대의 고전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책자의 생사관에 대한, 네 영체에 관한, 그리고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의 큰 스님 법설을 통해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살 것이며,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교의 설명으로는 , ○불교의 교의로는 도대체 판단이 서지 않았던 것이다.

그동안 나는 그저 살았다고 해야할까..... 나는 이제 현지사 큰스님을 만나 인생의 의미를 뚜렷이 알게 되어 매일 매일 보람을 창조하며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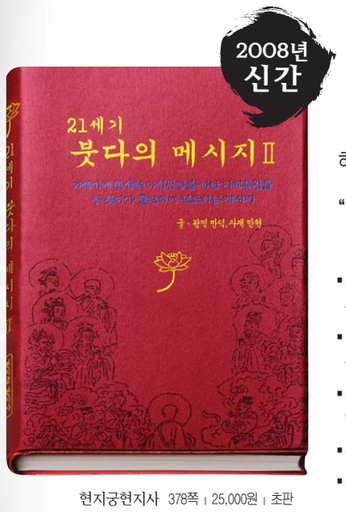
사람이 죽으면 어찌 되는지 현대를 사는 모든 이들에게 종교를 초월해서 누구나 이 세 권의 미증유한 성서를 꼭 필독해보시기 바란다.

– 지방대학교 의과대학 주임교수

춘천법회 – 매월 음 8일 / 부산법회 – 매월 음 23일

21세기 불교계에 새로운 경전 탄생!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Ⅱ

2개월만에 5쇄 시판



현지궁현지사 378쪽 | 25,000원 | 초판

21세기에 탄생한 가섭 광명불 아난 자재통왕불 두 붓다가 이 땅에 출세하여 전하는 부처님의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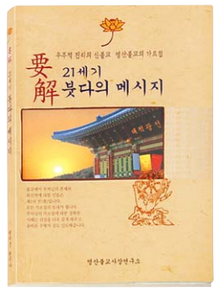
발간 하자마자 6개월 연속 불교서적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던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2탄 입니다.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랐습니다. 종교상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해도 오히려 부족합니다.

“21세기 붓다의 메세지 Ⅱ”를 통해서 불교가 왜 위대한 우주적인 메타종교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 부처님 이후 2600여년 만에 열리는 영산불교 붓다회상의 희유한 설법장면, 부처님께서 상주하시는 현지궁의 모습과 부처님의 일상 일부를 공개.
- 인간의 실체인 영혼체와 영혼체가 가는 사후세계인 중음세계 · 육도윤회세계 · 해탈세계의 실존과 실상을 밝히면서 완벽한 생사관을 제시.
- 보살 · 붓다가 되는 혁신적인 칭명염불 수행법을 주창하여 ‘자 · 타력불교’라는 불교수행의 일대 파라다임 변혁을 주도.
- 무아와 윤회주체간의 모순관계에 대한 불교계의 오랜 논쟁을 명쾌하게 해결.
- 수행을 방해하는 용신 · 이매망량 · 정매마 · 천마 등 마장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Ⅱ – 요해
[영산불교사상연구소]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 Ⅱ≫와 자재만현 큰스님의 70여회 붓다회상의 설법내용중 핵심만을 골라 체계적으로 정리한 영산불교의 가르침을 집대성

http://www.hyunjisa.or.kr 판매처 영산불교 현지궁 현지사 춘천 본사 Tel 033)243-1787,1795 / 영산불교 현지궁 현지사 부산 분원 Tel 051)554-5150